

사순 제 4 주일

제1독서 : 1사무 16,1-6,7.10-13-7

제2독서 : 에페 5,8-14

복음 : 요한 9,1-41

숲 정 이

이 주일의 화답송

주님께서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노라.

강론

예수 편에 서자

서철승 신부/ 봉동성당 주임

금은방을 운영하는 본당 신자가 있다. 어느 날 한 손님이 열 돈의 금이라며, 2개의 예물을 팔러 왔단다. 실제 무게를 달아보니 각각 아홉돈, 여섯돈으로 합 열 다섯돈이 되었다. 그냥 모른체하고 열돈의 금액만을 내 줄 수도 있었지만, 차마 그렇게 할 수는 없었다. 아내도 사실대로 손님에게 말씀드리라고 재촉했다.

그래서 손님에게 솔직히 이야기하자 손님은 고맙다는 말과 함께 아홉돈에 해당하는 예물만을 팔고 집에 돌아갔다. 당장에는 그 신자가 돈을 덜 만지겠지만 그 손님은 그 금은방 주인의 솔직함에 매료되어 평생 단골이 되지 않을까?

이 이야기는 우리 신자가 예수님 편에 서서 용기 있게 믿음을 실천한 예이다.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소경이야말로 용기있는 사람이다. 예수님은 태생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 소경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빛을 받아 육적인 눈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까지도 뜨게 되었다. 소경이었던 사람과 그의 부모는 예수님을 고백하기 위하여 트집을 잡으려는 사람들 앞에 서게 되었다. 소경의 부모는 유대인에게 배척을 당할까 두려워서 자기 아들의 눈을 누가 뜨게 해주었는지 모른다고 대답했다. 오히려 아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였다. 반면 소경이었던 사람은 자신의 눈을 뜨게 해준 분은 하느님께서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당당하게 증언하였다. 소경이었던 사람과 그 부모의 모습이 바로 빛 속에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모습을 생각하게 한다. 빛 속에 사는 사람들은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으며,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당당하게 자기가 믿는 것을 말할 수 있다. 반면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은 사람의 힘을 믿기에 진실을 보고도 말할 수가 없다.

우리들도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 편에 설 수도 있고, 또 그 반대편에 설 수도 있을 것이다.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하느님 편에 서서 당당하게 진실을 말하며 용기있게 살아갑시다.

“지금은 주님을 믿고 빛의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에페 5, 8)

소리

스스로 과대평가하는 교회?

“주교님들만 대회년 준비를 위해 뛰고 있는 것 같고, 일반사목자들과 신자들이 너무 무관심하다”, “아직도 회년정신이 신자들에게 확산되지 않고 있다”, “청년들을 위해 특강이나 교육 기회를 마련해 준 적이 한 번도 없다”, “각종 책자와 자료들도 신자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이 더러 있다”, “신자들에게 회년 준비의 일환으로 회개를 촉구했으나 정작 교회 차원의 회개 절차는 없었다”, “우리 교회가 스스로를 과대평가하고 있는 동안 세속주의에 감염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 이상은 한국 교회의 대회년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회년은 “단순한 회상이나 기념이 아니라, 말씀·강생·죽음·부활의 신비가 지니는 온갖 부요를 성사적으로 현존하게 하는 기념비적 사건”이라고 교회는 가르친다. 그런데 3백일도 남지 않은 대회년의 시작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의식이나 실제 삶은 어떠한가? IMF의 어려움 때문에라도 우리는 회년의 정신을 익히고 살아야 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지금은 사순시기, 그리고 우리는 부활의 여정에 이르는 중턱에 와 있다. 얼마 남지 않은 사순시기에 회년의 의미를 배우고 익히는 일에 마음을 쓰자고 제안한다. 개인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가정과 작은 공동체 안에서 이 일이 무르익어야 하겠다. 본당에서도 다른 어떠한 일보다도 이 일을 우선으로 삼았으면 싶다. 교회마저 세속주의에 빠져서야 쓰겠는가! [甲]

숲 정 이 산책



“분담합시다”



1999년 성부의 해 - 아버지의 집을 향해 가는 해

“회개-돌아서서 하느님께 향하는 것”

사순 시기 동안, 그리고 교회가 새로운 천년기를 경축하기 위해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의 회개의 여정은 중요하다. 진정한 회개는 부정적인 면과 동시에 긍정적인 면을 포함한다. 한편으로 우리 삶의 죄와 그 죄들로부터 해방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며, 다른 한 편으로 선을 택하여 우리 죄에 대한 일종의 보속을 할 필요가 있다.

“회개”에 해당하는 그리스 말은 문자 그대로 “다시 생각함” 또는 “마음을 바꿈”을 뜻한다. 다시 말해, 유감스러워하고, 참회하며, 회심하는 것이다. 이 회개는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기보다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변화하는 것, 우리가 떠나기로 한 어떤 것으로부터 가고자 하는 선을 향한 변화를 의미한다. 곧 회개는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느님께 향하는 것이다. 성서에서, 참회는 정지된 생각이 아니라 매우 역동적 개념이다.

회개의 부정적 측면은 우리의 과거, 잘못된 길로 빠져들어서 이제껏 살아온 방식을 떠나 변화하고 싶다는 자각을 말한다. 죄를 지은 사람은 과거에 어떠한 잘못들을 저질렀으며,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있다. 질투했거나 교만했다는 것, 어떤 사람을 속인 적이 있다는 것, 약속을 무시했다는 것을 알 것이다. 이러한 자각이 기본적인 첫걸음이다. 그러나 그 부정적 측면에서 멈춘다면 잘못이다. 단지 자책과 후회만으로는 불완전하다.

어쩌면 죄와 그 결과에 대해 후회하는 것은 거의 필요하지 않다. 무엇보다 우리가 후회하는 그 행동

을 바꾸어야 한다. 이 말이 사실임을 초대 그리스도인들도 분명히 보여준다(사도행전 2장, 26장 참조). 오늘날 세상에서는 자신의 잘못들을 쉽게 간과해 버릴 수 있다. 이것을 부추기는 것 가운데 하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우 바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한 가지 일에서 다른 일로 뛰어다님, 직장의 의무들, 가정에 대한 책임, 많은 계약들...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볼 시간조차 찾기 어렵다. 또 다른 한 가지는 현대 사회가 종종 인정하는 행동의 기준들이다. 우리는 하느님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원칙들에 반대되는, 그럭저럭 받아들여질 수 있는 행동들을 매일 만나게 된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도덕적 행동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점점 무디어진다.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는 예수님의 기준으로가 아니라 세상의 잣대로 우리 자신의 삶을 살펴보게까지 되는 것이다. “다들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말은 사람들이 행동을 합리화하는 한 방법이다. 뉴욕의 사장이던 에드 코치는 매일 아침 지하철로 출근하며, “제가 시장 에드 코치입니다. 제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하고 물었다고 한다. 우리의 삶을 살펴보기 위하여 시간을 내는 것, 그리고 규칙적으로 멈추어 “예수님, 제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하고 묻는 것은 이 회심의 여정에서 우리를 도울 수 있다. “좋은 아버지, 은총의 때인 이 회년에 저희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해 주소서. 아멘.”

- 「대희년을 준비하며 - 하느님 아버지」 -

기쁘고, 은총의 대희제 2000년 대희년은까지, 286일 남았습니다.

남 부 장 의 사
 잔디, 묘지이장, 수의, 석관
 임실 호남 장의 버스 주야 대기
 최 창 식(셀리스티노)
 문 정 욱(루 시 아)
 남부시장내 수산시장 앞
 ☎ (0652) 284-4000
 288-3530
 (휴) 011-678-3530

서도프라자 확장이전
코아삼의 피아노
 피아노, 교회용 전자올렌(면세)
 디지털피아노, 키보드
 일반악기 도소매
 효자동 서도프라자 2층
 양 노 섭 (하상 바오로)
 ☎ 225-5252. Fax 223-5332

디스크 요통 치료기
 서울 백병원 인제병원 2년 임상실험
 결과 착용후 3일 이내 82%이상 호전
 기존 허리벨트와는 전혀 다른
 정형용 견인장치 「디스크 닥터」
 김 중 진(스테파노)
 다가동 복자성당 옆
 창 의 메디칼 ☎ (0652)282-1610-1

LG 에어컨 예약
 15~23% 할인 + 6개월 무이자
 식당용 냉장고 파격세일
 백제로 빙상경기장 건너편
 원 승 연(도 밍 고)
 ☎ (0652) 241-2000

☎ **궁금해요**

요즘 들어 가정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어떤분이 엠이(M.E)교육을 추천해주셨는데 엠이(M.E)교육이란 무엇인가요?

M.E란 'MARRIAGE ENCOUNTER'의 약자로서 부부간의 새로운 만남을 통하여 부부생활을 변화시켜주고 서로의 느낌과 체험을 나누는 대화를 통하여 부부로서의 참된 만남을 얻도록 도와주며, 더 나아가 이웃들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그 목적을 둔 교회 신앙 색신 운동 중의 하나입니다. 이는 1958년 스페인의 칼보 신부가 문제 아동의 원인이 가정에 있음을 깨닫고, 원만한 가정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는데 그 성과가 놀라운 것이어서 확산되기 시작하였습니다. 10년 후 미국 노틀담 대학의 찰리스 켈러가 신부가 몇 쌍의 부부에게 부엌 식탁에서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점차 발전하여 오늘과 같은 M.E운동이 되었습니다.

M.E운동은 주로 주말을 이용하여 2박 3일동안 경험담과 대화를 중심으로한 교육을 마친 후 다시 매월 1회씩 지속적인 모임을 합니다. 보통 결혼한지 5년 이상 지난 부부들에게 권장하며 더 나은 사랑과 일치를 이루고자 하는 이는 종교와 상관없이 이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생활에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부부생활을 더욱 값지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본당 신부님께 상의하시고 꼭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의 신자가 아닌 분들께도 소개해 주신다면 그들이 교회를 접할 수 있는 선교의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교구·제 단체 소식

- 1. 구역반(장)교육(1차) 군산지구 : 3월 15일(월), 오전 10시, 둔율동 성당
- 2. 여성연합회 총회 : 3월 15일(월), 오후 2시, 가톨릭 센터
- 3. 수녀연합회 총회 : 3월 15일(월), 오전 10시, 가톨릭 센터
- 4. 사랑의 다리 후원회 피정 : 3월 16일(화), 오전 9시 30분, 용머리 성당
- 5. 성체분배권 교육 : 3월 18일(목), 오전 10시 30분, 가톨릭 센터
- 6. 지속적인 성체조배 봉사자 월례미사 : 3월 20일(토), 오후 4시
완주군 소양면 해월리 기도의 집
- 7. 전례교육 : 3월 20일(토)~21일(주일), 나바위 피정의 집
준비물 - 미사도구, 필기도구, 세면도구
- 8. 가톨릭사진가회 촬영모임 : 3월 21일(주일), 오전 7시
가톨릭센터 출발(회원수시모집)
- 9. 지속적인 성체조배 봉사자 사순절 피정 : 3월 25일(목) 오후 1시, 효자동 성당
강사 - 이병호 주교님, 참가비 - 이천원
- 10. 천호피정의 집 피정 : 3월 23일(화), 주제 - 아버지께 돌아가자. 지도 - 정승헌 신부
3월 25일(목), 주제 - 보라! 십자나무. 지도 - 김기곤 신부

— 가톨릭 청년 성서모임 —

대상 : 대학생 및 일반청년 개강 : 화요일 - 3월 23일 오후 7시, 목요일 - 3월 25일 오후 7시

내용 : 창세기 문의 및 접수 : 교육국 이요하나 수녀님 (0652) 285-0041

요심이 (1336) 김병오



성소모임
서울 포교 성 베네딕도 수녀회
 일시 : 3월 21일, 오후 2시 매일 셋째주일
 장소 : 동국APT, 106동 104호
 (숲정이 성지 옆)
 문의 : (02) 922-9004/89015-127-3177
 서울시 청북구 둔암2동 413-79(우) 136-082
 성소 상담 언제든지 가능

하루 피정
성 빈센트 드벨 자비의 수녀회
 일시 : 3월 21일(주일) 오전 9시
 장소 : 수원 본원
 문의 : (33)1241-2151-3
 성소 상담 언제든지 가능

가 나 석 유
 보일러 등유, 사무실 난로 등유
 보일러 무료 점검 서비스
 * 신속배달
 대표 : 임 영 님(글라라)
 ☎ (0652) 286-5151
 (0652) 285-9495

토탈 패션
I M A+
 영계주얼, 보세의류 전문 패션몰
 김 문 식(베드룸)
 심 점 순(데레스아)
 객사뒤 K.F.C 앞
 ☎ (0652) 231-7853

제일장문외과
 (구, 제일학문외과)
 대장·항문 전문병원, (치질, 치루, 치열, 항문주위 농양, 변비), 유방 클리닉
 의학박사 최 성 양(루가)
 전문의 안 해 선
 익산시청 ↔ 북부시장 사이
 ☎ (0653) 858-7575, 7585

노송신협 슈퍼마켓
 부식납품전문
 · 풍년제과 직영점
 · 목우촌 정육, 햄직판장
 (조합원은 상려금을 드립니다.)
 이 정 호(마르코)
 안 병 옥(마르타)
 전교정문앞 노송신협 2층
 ☎ (0652) 231-5270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노송동 주임신부 282-9663 사무실 282-9661 주임신부 이수현
F A X 282-9664 수녀원 282-9662 사목회장 박오안

1. 사순절 사랑의 성금 접수: 사무실
2. 사순절 성서(집언집)필사: 부활대축일(4월 4일)까지 사무실에 제출
3. 반미사 및 판공 일정: ① 16일(화) - 대우 아파트 1, 2반
② 17일(수) - 중노 13, 14, 15반
③ 18일(목) - 중노 16, 17, 18반
④ 19일(금) - 중노 19, 22, 23, 24반
* 시간 - 후 2시, 구역(반)장 회장님들께서는 많은 분이 나오실 수 있도록 협조바람
4. 모임: ① 장우회, 대건회 - 오늘, 교중미사 후
② 재속형제회 - 오늘, 후 2시
③ 제대회 - 17일, 어머니 미사 후
5. 금주 전례: 해설 - 최광석, 독서 - 노관석, 조분님
보편지향기도 - 서남석, 이춘희
봉헌 - 이황복 부부
6. 차주 전례: 해설 - 이수원, 독서 - 김시령, 진경숙
보편지향기도 - 변태공, 이영나
봉헌 - 전도열 부부
7. 금주 청소: 중노 5반, 중노 6반
8. 차주 청소: 중노 8반, 중노 9반

□ 지난주 봉헌금: 1,321,050원 □ 교무금: 2,674,000원

복자 주임신부 286-3453 사무실 286-3455 주임신부 김진룡
F A X 288-3455 수녀원 286-3454 사목회장 신일균

1. 사순절 특별신앙강좌: 14일(주일)
강사 - 대전교구 오계수(유스티노)
2. 전례교육: 20일(토)~21일(주일), 나바위 피정의 집
3. 봉헌: 성주간과 부활대축일에 꽃이 필요합니다.
개인이나 단체로 봉헌을 기다립니다.
4. 금주 모임: ① 요셉회, 울뜨레야 - 교중미사 후
② 청년회 - 저녁미사 후
5. 주간 모임: ① 성모회 - 18일(목) 전 10시
② 자모회 - 20일(토) 후 3시
* 다음주일(21일)은 자모회 후원(희비남부)의 날입니다.
6. 차주 모임: 해설자 모임 - 교중미사 후
7. 전례 안내:
① 금주 해설 - 오경진, 독서 - 장형상 부부, 봉헌 - 태평 1반
② 차주 해설 - 정승훈, 독서 - 김창환 부부, 봉헌 - 다가 2, 3반
8. 성당 청소: 20일(토) 일치의 모후 Pr., 자비의 모후 Pr.
9. 신축 헌금: 신림총액 - 204,916,050원, 입금누계 - 183,764,774원
* 지난주 입금자 - 김경순(리카르다) 10만, 김만식(요한) 50만

□ 지난주 봉헌금: 578,300원 □ 교무금: 1,365,000원

□ 2차 헌금: 429,900원

상관 주임신부 285-6654 사무실 285-6652 주임신부 김윤섭
F A X 285-6652 수녀원 285-6653 사목회장 최경림

서학동 주임신부 284-8307 사무실 286-4929 주임신부 문규현
F A X 232-9029 수녀원 284-2276 사목회장 김영곤

- ◎ 함께 나누시다: 실직자돕기 2차헌금을 매주 실시합니다.
중도리 운동으로 성체성사의 나눔을 생활화 합니다.
1. 십일조 정식으로 고무금 신립하고 불연합니다.
2. 전신자 미사때 성서, 성가집, 기도서 지참합니다.
3. 사순절동안 모든 고백성사는 판공성사입니다.
4. 주님 수난 성지주일: 28일(주일) 공식미사 중, 성지가지 축성식
5. 사순절 영성 강좌: ① 때 - 사순시기 매주 수요일 저녁미사 후
② 주제 - 예수 수난, 그 여정의 인물들 ③ 강사 - 김선태 신부
6. 사순절 특별 강좌: ① 때 - 사순 4주일(14일)
② 주제 - 새날 새함운동에 대해 ③ 강사 - 박비오 신부
7. 사순절 공동 십자가의 길: 사순시기 매주 금요일 저녁미사 시
8. 성서통독, 성서쓰기 운동: 매일 소리내어 읽고 써서 말씀과 함께 합니다
9. 세례자 특별교리: 매주일 공식미사 후 (14일, 21일, 28일).
29일~31일, 저녁미사 후, 소강당
10. 새신자 환영식: 오늘 공식미사 시
11. 사순절 집중 판공성사: 22일~26일(금) 미사전후, 25일(목) 10시 미사 후 계속 ① 초동부 - 27일 후 3시 ② 중·고 - 27일 후 6시
12. 성삼일 미사 안내: ① 성목요일(4월 1일) 주님의 만찬미사 후 7시
* 성체조배 계산판 참조 ② 성금요일(4월 2일) 금육, 금식 - 후 3시, 치명자산 십자가의 길, 후 7시 - 십자가 장엄예절
③ 성 토요일(4월 3일) 부활성야미사 - 후 8시
13. 아이에스 행사: 25일(목) 후 7시 30분 14. 전례부 해설자 모임: 21일 공식미사 후, 제 3회합실 15. 금주 모임: ① 성심회 - 10일(수) 전 10시 30분, 1회합실 ② 울뜨레야 - 11일(목) 후 7시 30분, 1회합실 ③ 프란치스코사회 - 14일(일) 후 2시, 강당

전동 주임신부 281-0098 사무실 284-3222 주임신부 김종길
보좌신부 282-7245 수녀원 282-9234 보좌신부 김병희
F A X 282-6232 유치원 284-8347 사목회장 유철중

- ◎ 성서 통독 모임: 매주 금요일, 전 10시 30분, 후 8시 30분, 사제관 2층
- ◎ 축 김병희(오셀) 신부님 영명 축일: 19일 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식 - 오늘 공식미사 후 ◎ 성서필사: 집회서 - 사순절부터 시작
- ◎ 십자가의 길(사순 기간): 매주 화요일~금요일 후 6시 30분
- ◎ 2000년 대외년 은총을 위한 성령묵상회: 서울 대교구 성령 봉사회, 일시 - 3월 12일~5월 7일까지 매주(금요일)마다 후 7시 30분, 참가비 - 5천원 (사무실에 접수) 건진 대상자는 물론 신자들의 많은 참석바랍니다.
- ◎ 치명자산 산상 9일미사: 22일(월)~31일(수), 전 5시 30분
* 9일 동안 본당 새벽 미사 없음
- ◎ 부활 판공성사 일정안내: 27일(토)~31일(수) ① 27일(토) - 후 3시~5시, 5시~6시(초등학생), 7시~9시 30분 ② 28일(일) - 전 10시~11시(중고학생), 후 3시~5시, 7시~9시 30분 ③ 30일(화) - 전 10시~12시, 후 3시~5시, 7시~9시 30분 ④ 31일(수) - 전 10시~12시, 후 3시~5시, 7시~9시 30분
1. 금주 모임: ① 자모회 - 전 10시 ② 일치의 모후 푸리아 - 후 2시
③ 사목회 - 후 8시 2 주간 모임: ① 사베리외회 - 17일(수) 후 7시 30분
② 요셉회 - 19일(금) 후 5시
3. 영세식: 4월 4일 전 10시, 영세자 면담 - 24일, 25일, 전 10시~12시, 후 2시~5시, 25일, 후 2시~5시, 7시 30분~9시, 영세자 집중교리 - 23일~25일, 후 7시 30분, 교육관, 영세 총 준비 - 27일, 후 8시, 영세자 성지 순례 - 21일(일) 후 2시, 치명자산
4. 성지 가꾸기 위한 성당내 컵초 봉헌대 설치: 주님 수난 성지주일(28일)부터 많은 봉헌 바랍니다.
5. 봉헌 청소: 20일(토) 후 4시 그리스도의 어머니 Pr., 동정모친 Pr. 천지의 모후 Pr.
6. 차주 모임: 바느의 성모 푸리아 - 후 2시

□ 지난주 봉헌금: 2,161,430원 □ 교무금: 3,120,000원

평희동 주임신부 232-5001 사무실 232-5005 주임신부 이상설
보좌신부 232-5002 수녀원 232-5004 보좌신부 이원철
F A X 232-5003 사목회장 황의목